

단체장 무분별 투자유치 ... 주민 내쫓기고 지역내 찬반 갈등 심화

이슈 현장 ▶ 순천시의 이상한 농공단지 조성

시, "투자 막을 방안 없다" 주민·업체 사이 어정쩡 일부선 '석산 개발 후 토지매각' 불순한 의도 의심

순천시 해룡면에서는 2015년 조성 이 완료되는 산업단지 바로 옆에 다른 사업자가 2016년 상반기까지 또 다른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에 혈안이 되면서 과도한 분양 책임이나 이자 및 수수료 지급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에서는 산업단지 바로 옆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공단지 개발이 '지역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조성중인 산단 옆에 농공단지 개발은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없었던 사례인데다, 이해당사자들 사이 갈등의 골도 깊어 해결 기미가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산단 개발로 인해 고향을 벗어나 임시거처에서 지내며 이주단지 조성만을 기다리고 있는 원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순천시는 '투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주단 기다리는 주민들= 지난 29일 순천시 해룡면에 임시로 마련된

컨테이너 개조주택 앞 그늘에서 마을을 가던 박정애(81) 할머니는 "살 수가 없다"며 "시장이 한 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특히 이번 여름 섭씨 35도가 넘어가자 컨테이너 안은 금세 40도를 오르내렸다. 아들이 사준 중고 에어컨은 전기요금 때문에 틀 수도 없고, 예전에는 마당에서 재배해 먹었던 각종 야채도 이제는 모두 사서 먹어야 한다. 자식들에게 조금씩 떼어주고, 남은 보살급을 아껴야만 먹고 있어 배 할머니의 걱정은 태산이다. 배 할머니가 임시거처에 온 것은 지난해 상반기, 벌써 1년을 넘어서고 있다.

도시에 주택을 살 형편이 안 되는 12가구 모두 70대 이상 고령자. 2015년 말 이주단지로 들어갈 생각이 간절한 이들 노인에게 '배부락산 개발'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강희자(70) 부녀회장은 "이주단지가 바로 배부락산과 인접해 있어 밭과작업을 하게 되면 그곳에 살 수 없다"며 "지

금까지 그 산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으나 모두 포기했는데, 왜 이 시점에 또 개발하려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조성 둘러싼 입장 차 커 '난망'= 순천시는 "주민 편에도, 업체 편에도 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돼 있지만 주민 등의 반발이 커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뿐이다.

농공단지 사업자인 ㄱ업체는 "이미 배부락산 내 사유지 가운데 절반 이상을 매입해 사업 포기를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나 해룡산업단지 사업자인 ㄴ건설사와 전남도는 이 같은 시와 사업자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전에 가능하냐는 문의는 있었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데다 개발시기가 중첩돼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장 분양에 나서야 하는 산단 사업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반발하고 있다. 정밀기계 분야 등의 업체에 분양한 뒤 2단계와 이주단지 조성이 가시화될 경우 사업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산단 사업자는 "지난 2010년 전 시장 재임시절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시에서 아무런 도움을 안 주고 있다"

며 "바로 옆에서 석산 밭과 작업이 진행되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무분별 지자체 투자 유치=분양을 해야하는 해룡산업단지와는 달리 추진중인 농공단지는 '실수요자 방식'이다. 즉 조성해두면 중국 업체가 곧바로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의사를 전해온 중국업체는 2016년 6월 석산 개발 이후에야 실제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이 중국업체가 그 때까지 존속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의사만 있으면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후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ㄱ업체 관계자는 "바로 옆 산단 조성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석산 밭과로 나온 토사 및 골재를 팔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 이 업체가 석산 개발 후 이득을 얻고 이후 토지가격이 올라가 이를 매각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투자협약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으며, 어떻게 알아보고 했는지 모른다"며 "실제 중국 업체가 투자할지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순천시가 2015년 완료 목표로 조성중인 해룡산업단지 바로 옆 석산(배부락산)을 농공단지로 조성하는 개발허가신청에 대해 인허가절차를 진행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멀리 보이는 것이 석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순천시 해룡면에 마련된 임시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할머니가 지난 29일 힘겹게 언덕을 오르 고 있다. 2015년 말 이주단지로 옮겨갈 생각에 하루하루 참고 지내던 12세대 주민들은 갑자기 제기된 석산 개발로 이주가 늦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이 1일 당사를 9년 만에 여의도로 이전하고 당 상징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했다. 김한길 대표가 이날 새 당사 입주식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파란옷' 입었다

상징색 노란색→파란색 ... 당사 9년만에 여의도로 이전

'赤與靑野' 격세지감

민주당은 1일 당사를 여의도 국회 앞 대산빌딩으로 이전하고 당 상징색을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했다.

민주당의 여의도 당사 시대는 지난 2004년 3월 불법대선자금 사건 당시 '호화당사'라는 비판 속에 영등포 당사로 옮긴 지 9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맞은편인 새 당사에서 당 지도부와 상임고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새 당사 입주식을 했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의 새 상징

민주당 이 '사람이 먼저'

민주당의 상징색으로 택한 청색은 신뢰와 희망, 진취성과 미래를 상징한다.

삼각형은 '사람 인' 자를 형상화한 것으로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담은 민주당의 3대 핵심 가치인 민주, 민생, 평화를 표현했다.

은 국민과 함께 변화와 희망의 시대로 가겠다는 약속과 서민·중산층 벗어났다는 다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는데 나침반이 되겠다는 비전을 담

았다"며 당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영등포 당사 폐쇄 및 중앙당 슬림화의 후속 조치인 이번 당사 이전에 따라 당사 규모는 기존의 1400평에서 127평으로 대폭 줄었다. 새 당사에는 총무·조직·감사·법률민원 부서와 대표실이 들어섰으며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지원 부서는 각각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으로 분산 배치됐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당사 이전으로) 정책지원 예산 여력이 5억 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의정활동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새 로고는 청색 바탕의 직사각형 속에 흰 글씨로 '민주당'을 새기고 왼쪽 하단에 흰색 삼각형을 그린 형태다. 상징색이 파란색이 된 것은 민주당 6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은 과거 평화민주당·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통합당 등을 거치며 노란색과 녹색을 번갈아 상징색으로 써왔다.

박광은 홍보위원장은 "변화와 확장, 즉 과감한 변화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네와 나
익숙해 가는 바르움에
조금씩 조금씩

보해 인세죽
한강의 숲에도 바다의 길이기도
Since 1956 보혜

보혜 고객상담실 (080)585-3111 / www.bohae.co.kr

경고: 자네와 나 술주는 건강해나 건강을 잃으려나 운명이나 적당량 먹고 알뜰함을 놓치지 마라

빛의 만평 - 김종두

이쪽은 날선것 같다